

클래식 명곡 산책 - 9 - 가곡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악기는 신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준 유일한 악기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언어와 결합하여 가장 효과적인 전달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노래의 역사는 길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한데요, 여기서는 '리트'(lied)라고 불리는 독일어 예술가곡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래 노래라는 것은 모두가 이해하기 쉽고 따라 부르기 쉬운 음악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적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았죠. 하지만 베토벤은 기량이 필요한 노래들을 조금씩 내놓기 시작하더니, 슈베르트에 이르러서는 전문 가수가 무대에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19세기 말에 와서야 예술가곡에 관심을 보인 것을 보면, 독일/오스트리아는 100년 정도 앞서간 것이죠. 여기서는 리트와 함께 약간의 독특한 노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프란츠 슈베르트 Franz Schubert (1797~1828)

가니메트 Ganymed, Op.19 No.3, D.544

최정상에서 Auf der Riesenkoppe, D.611

밤과 꿈 Nacht und Träume, Op.43 No.2, D.827

프란츠 슈베르트는 고전에 집착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앞선 시대의 거장이었던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이 힘 쏟았던 교향곡, 현악사중주, 오페라, 소나타 등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였으며, 그들이 이룩한 고전을 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분량 또한 적지 않죠. 하지만 그를 지금까지 기억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낭만의 상징인 '리트'입니다.

슈베르트에게 리트가 중요한 것은 600여 곡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뿐만 아니라, 슈베르트의 리트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당시의 리트는 민속적인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예술의 범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슈베르트는 리트를 창작의 개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부르면서 즐기는 노래에서 들으면서 즐기는, 즉 연주와 감상을 위한 노래로서의 리트를 확립한 것이죠. 이렇게 리트를 재정의하면서 낭만 리트를 확립한 것이 슈베르트의 큰 업적입니다. 대신 슈베르트는 좋은 가수가 필요했고, 그래서 요한 미하엘 포글이라는 훌륭한 가수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갈채를 받는 사람은 항상 포글이었죠.

그의 수많은 가곡 중에서 여기서는 세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니메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을 위해 술을 따르던 '가니메데스'라는 미소년이 있습니다. 괴테는 '가니메트'라는 시에서 가니메데스를 봄의 아름다움에 빠져 제우스의 꿈에 넘어가는 인물로 그리고 있죠. 초기 출판본에서는 '프로메테우스'와 짝을 이루도록 하였는데, 혈기왕성하고 반항적인 프로메테우스와 신에게 순응하는 가니메데스를 함께 둠으로써 인간의 두 가지 특징을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슈베르트는 이 시에 음악을 붙여 <가니메트>를 작곡했습니다.

<최정상에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테오도르 뢰르너의 시를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뢰르너의 시에 붙인 가곡은 대부분 1815년에 작곡되었지만, 이 곡은 이들보다 다소 늦은 1818년에 작곡되었죠. <최정상에서>는 다른 리트와는 달리, 열정적인 레치타티보로 시작하여 아리오소가 등장하고 다시 또 다른 레치타티보로 마치는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옛 바로크 시대의 독창 칸타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림 1. 프란츠 슈베르트 / 출처 : wrti.org



그림 2. 포글과 슈베르트
(프란츠 쇼버, 1825 / 출처 : wikipedia.org)

1823년에 작곡된 <밤과 꿈>은 나폴레옹 아들의 교사였던 마테우스 폰 콜린의 시를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시가 가진 고요한 정서를 평화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구스타프 말러 Gustav Mahler (1860~1911)

어린이의 신기한 뿔피리 Des Knaben Wunderhorn

‘어린이의 신기한 뿔피리’는 아힘 폰 아르님과 클레멘스 브렌타노가 편집한 독일 민속 시집으로, 19세기 초에 출판되었습니다. 이들은 민속시를 운율이 맞도록 문학적으로 정리했으며, 옛 단어를 현대 독일어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지은 것도 있었죠. 이 시집은 정치적으로 분산되어있던 독일의 민족적인 단일성을 고취시켰을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으며, 괴테와 같은 대문호들도 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시를 가사로 하여 가곡을 지은 작곡가는 베버와 멘델스존, 슈만, 뢰베, 브람스, 첼린스키 등이 있지만, 이 중 말러의 곡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러는 초기에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등에서 ‘어린이의 신기한 뿔피리’의 시를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1892년부터 1896년까지 작곡된 열 두 곡으로 구성된 <어린이의 신기한 뿔피리>가 단연 유명하죠. 특히 이 곡의 멜로디는 이후에 작곡되는 교향곡 2번과 3번, 4번에 사용되는 등, 말러의 초기 음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열두 곡 중 일부를 살펴보면, 4곡 ‘누가 이 노래를 만들었나요?’는 산장지기의 딸을 그리며 부르는 밝은 사랑 노래이며, 7곡 ‘라인의 전설’은 한 소녀가 옛 전설을 생각하며 풀을 베는 노래입니다. 그 전설은 반지를 라인강에 던지면 물고기가 그걸 삼킬 것이

고, 그 물고기를 임금님의 식탁에 올라서 왕이 발견하게 되고, 반지가 누구 것이냐고 물으면 자신의 애인이 자기 것이라고 하고 달려온다는 내용입니다. 1899년 판에서 11번째 곡으로 출판되었던 ‘근원의 빛’은 <교향곡 2번 ‘부활’>의 4악장으로 옮겨지고, 대신 1901년 판에서 ‘죽은 고수’로 대체되었습니다. ‘죽은 고수’는 총에 맞고 쓰러진 북 치는 병사가 시체 속에 누워서 북을 치면 죽은 아군의 시체들이 벌떡 일어나서 적군을 공격하고 개선하여 연인의 집 앞으로 가는 것을 상상하며 죽어간다는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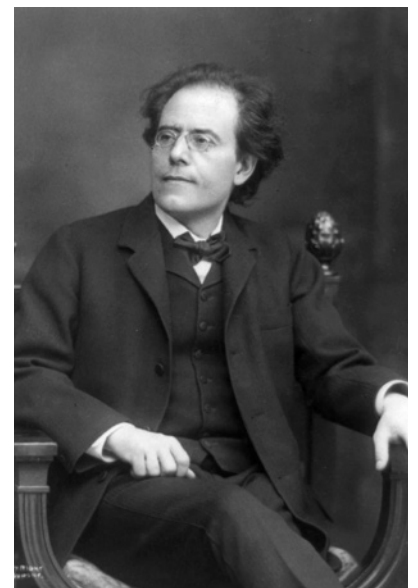


그림 3. 구스타프 말러 / 출처 : wikipedia.org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Richard Strauss (1864~1949)

세실리 Cécilie, Op.27 No.2

세레나데 Ständchen, Op.17 No.2

내일! Morgen!, Op.27 No.4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교향시와 오페라로 유명하지만, 소프라노인 그의 아내를 위해 수많은 리트를 작곡했습니다. 그의 리트들은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 볼프, 브람스 등 독일 리트 전통을 잇는 걸작들로서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결혼하기 전날인 1894년 11월 9일 바이마르에서 그의 부인을 위하여 <세실리>를 작곡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부인과 함께 한 공연에서 자주 연주하여 오랫동안 변치 않는 부부에 대한 상징물이 되었죠. 가사 또한 부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하인리히 하르트의 시를 사용했습니다. 이 곡은 슈트라우스가 흔히 사용하던 스트로피(후렴) 구조를 탈피하여, 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작곡되었습니다. 시의 첫째 연은 뜨거운 키스와 애무, 속삭임 등의 열정적인 사랑을, 둘째 연은 두려움, 고독한 밤, 절망 등의 사랑의 고통을, 셋째 연은 이를 극복한 축복의 빛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곡의 분위기 또한 이러한 가사의 내용에 따라 분위기가 변화합니다. 오페라 아리아와 같이 폭넓은 극적 표현력을 갖고 있으며, 피아노 반주의 풍부하고 표현적인 효과로 더욱 빛이 납니다.

<세레나데>는 아돌프 프리드리히 폰 샤크의 시에 붙인 '6개의 가곡, 작품17' 중 두 번째 곡으로, 슈트라우스의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지만, 가장 어려운 곡이기도 합니다. 16분음표의 빠르고 폭넓은 아르페지오를 갖는 피아노 반주와 옥타브 도약의 멜로디로 시작하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열정과 간절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 곡은 조성에 대한 낭만적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곡을 시작하는 화려한 F#장조는 슈트라우스에게 신비와 꿈을 상징하며, 가사의 셋째 연에 이르면 단6도 높은 D장조로 이조되는데, 단6도 이조 또한 낭만시대의 전형적인 신비의 상징이었습니다. 셋째 연은 앞의 두 연과 멜로디나 화성의 진행이 완전히 다르지만 피아노의 아르페지오 반주는 끝까지 유지됩니다.

<내일!>은 슈트라우스의 가장 잘 알려진 노래 중에 하나로, <세실리>와 같이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작품입니다. 가사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독일 시인인 존 헨리 모건의 시로, 사랑에 겨운 깊은 감정을 고요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있으며, 부드럽게 상승하며 멜로디는 결국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기쁨에 이릅니다. 사랑을 구하는 노래인 <세레나데>에서는 하행하는 빠른 아르페지오로 반주했다면, 사랑을 이룬 <내일!>에서는 상승하는 느린 아르페지오로 반주한다는 차이점은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에 피아노 반주가 단순해지면서 '더 조용히' 부르는 부분에서 고요한 사랑이 대단원에 이릅니다.

자코모 푸치니 Giacomo Puccini (1858~1924)

태양과 사랑 Sole e amore

죽음? Morire?

자코모 푸치니는 <투란도트>, <나비 부인>, <라 보엠>, <토스카> 등의 오페라 작곡가로 유명하지만, 콘서트용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오리지널 가곡도 있지만, 자신의 오페라에 사용했던 선율을 가져와 만든 노래도 있습니다.

<태양과 사랑>은 애창되는 푸치니의 노래 중 하나로, 오페라 애호가라면 이 곡의 멜로디에 익숙할 것입니다. <라 보엠>의 3막에 등장하는 사중창 '안녕, 아침의 달콤한 기상이여!'(Addio dolce svegliare alla mattina!)의 멜로디를 주선율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태양과 사랑>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사중창과는 매우 다릅니다. 연인의 아침 인사로서, 태양과 사랑이 연인을 잠자리에서 깨우며, 연인을 생각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푸치니가 직접 썼다고 생각되는 이 가사는 그 감상적 분위기가 멜



그림 4.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출처 : wikipedia.org



그림 5. 자코모 푸치니 / 출처 : puccinifestival.it

로디와 매우 어울리며,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죽음>은 오페라 <토스카>의 마지막 막에서 토스카가 연인이자 도망 다니던 반정부인사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총살형을 기다리고 있는 카바라도시에게 처형이 거짓으로 꾸며질 것이라고 알려주자, 카바라도시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부르는 아리아에서 가져온 곡입니다. 매우 밝고 힘이 넘치며 무대 작품인 만큼 극적 표현이 풍부합니다.

🎻 루치아노 베리오 Luciano Berio (1925-2003)

세쿠엔차 III Sequenza III

루치아노 베리오의 <세쿠엔차 III>(1965)은 성악적인 노래를 넘어 인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음악을 넘어 극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20세기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독자분에게도 분명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20세기 작곡가 중 한 사람인 베리오는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에 의해 편곡된 곡을 제외하고) 총 열다섯 곡의 무반주 독주악기를 위한 '세쿠엔차' 시리즈를 남겼습니다. '세쿠엔차'는 '연속'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일련의 화음이 연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며 진행한다는 의미로 붙여졌죠. 특히 화음을 낼 수 없는 선율 악기로부터 연속된 화음을 듣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쿠엔차 시리즈는 초절정인 기교로 악기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20세기의 가장 어려운 곡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세쿠엔차 III>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곡은 당시 부인이었던 소

프라노 캐시 버버리언을 위해 작곡되었으며, '세쿠엔차' 시리즈 중 유일하게 인성을 사용합니다. 베리오는 이 곡에 전통적인 성악 발성부터 웃음, 울음, 기침, 한숨 등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이 내는 다양한 소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황홀하게', '의심하듯이' 등과 같은 정서적인 지시를 통해 연주자의 폭넓은 감성적 표현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리는 극적 효과와 결합하여 연극적인 요소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세쿠엔차 III>은 세쿠엔차 시리즈 중 단연 돋보입니다. 이 곡의 극적 진행은 스위스의 역사학자인 마르쿠스 쿠퍼의 짧은 글을 바탕으로 합니다.

Give me	a few words	for a woman
to sing	a truth	allowing us
to build a house	without worrying	before night comes

이 가사는 본래의 형태로 군데군데 등장하기는 하지만, 알아들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리오는 이 가사를 해체하고 음악적으로 재조합하여, '악기로서의 인성'이 '제스처로서의 텍스트'를 연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음성적 제스처에 '의미의 그림자'가 동반"(베리오)하며, '제스처로서의 음성'은 몸짓과 결합하여 추상적인 음악극이 됩니다. 🎭



그림 6. 루치아노 베리오 / 출처 : scoopnest.com